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광양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시행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로 진공흡입 · 살수차 운행 확대 등

광양시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긴급저감 조치 발령은 오후 5시 기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20분 후인 5시20분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긴급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 홈페이지와 문자, 팩스, 마을안내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전파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에게는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또 행정기관(공공기관) 내 관용·직원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홀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진공흡입,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해 비산먼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으로 운영하는 건설공사장 가동시간 단축과 조정,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생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산업부분'에서는 전남도 지도점검 관할인 대기배출 1·2종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10일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를 통해 협약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에서 관할하는 3~5종 사업장과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운송부분'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400대 이상 노후 경유차량을 신청 받아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대당 1,950만 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가고 있다.

'생활부분'은 도로분진청소와 물뿌리기,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도시대기 측정소 교체 사업으로 태인동을 완료하고, 중동 측정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매실 소비촉진 상생마케팅 실시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서 매실 할인 판매

전국 최대 매실 주산지인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과 CJ제일제당이 공동 후원하여 31일 성남유통센터에서 매실 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와 광양시, 하동시 및 산지 조합장과 농협경제지주 마켓팅본부장 및 상생 후원 기업인 CJ제일제당, NH 카드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따라서 매실 첫 출하를 알리고 매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값싸게 구매하며, 지자체 및 후원기업은 사회공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생·협력 마케팅이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매실 5kg 박스당 2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며 물량은 75,000박스로 한정되어 있다.

순천시와 순천농협, 순천엔매실(주)는 이번행사를 계기로 수도권(가락, 강서, 구리)과 수원, 고양, 성남등 하나로 클럽에도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의 19개 법인과 작목반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천엔매실 주식회사를 지원하여 현재 1,508명의 주주로 구성된 순천을 대표하는 농업인 자생조직을 창립하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매실 주산단지인 월등면 운월리에 29억원을 투입하여 황매실을 활용한 기능성제품 가공공장을 준공한바 있으며, 매실농축액, 매실청 등을 생산하면서 순천주조, 보해양조(주)에 농축액을 납품토록 전략적 제휴(협약)를 체결했다.

농업정책과 박승조 과장은 "지역 전략품목인 매실의 소비촉진 상생마케팅 행사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100원 택시' 확대 운행한다

골약동 통사 · 중앙 · 대화 등 3개 마을 추가

광양시는 2015년부터 교통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오는 6월부터 골약동 지역 3개 마을을 추가해 총 22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이용권과 100원을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이다.

'100원 택시' 이용자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지난해 5월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97%가 만족할 만큼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운행기준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를 기존 1km에서 700m로 완화하고, 지난 1월 광양읍 삼성, 옥룡면 율곡?남정 등 6개 마을을 추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진행되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0원 택시'를 동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골약동 통사, 중앙, 대화마을 등 3개 마을이 추가돼 119가구가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이번 100원 택시 확대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대체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교통과장은 "100원 택시가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100원 택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 전역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2018 화순 국화향연' 현장 자문회의 개최

화순군은 29일 화순읍 남산공원에서 축제 자문위원과 관련 부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18 화순 국화향연'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4월에 개최하였던 관련 부서장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파종한 메밀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축제 현장을 직접 보고 살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문귀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로 국화동산 관람 동선을 따라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답사 후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경호 화순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자문위원 및 관련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경호 화순군수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국화향연이 엊그제 끝난 것 같은 데 이 자리를 통해 축제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바심이 난다"면서 "자문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지혜를 부탁하고, 더 좋은 국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년 국화향연은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7일간 남산공원에서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군은 6~7월중에 자문위원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국화동산에 파종했던 메밀은 언덕과 능선을 따라 만개하여 눈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상자를 오는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출산부·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건강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간 맞춤형 보충식품(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등)이 지급되며,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바른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영양실습 교실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김윤자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어 영양상태가 부족한 아이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아기 키우기 좋은 순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